

#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피부·모발 영양제 발명인

영 골드 曺 玉 善 사장



〈曺玉善 사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비밀펜 발명으로 영 골드의 사장이 되었던 曺玉善 여사가 이번에는 「피부·모발 영양제」를 발명하여 물질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직 교사인 曺여사는 어느덧 25년간 발명에 몰두, 중견 발명기업인으로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나

모발에 모세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빨리 노화현상이 일어나 보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착안에서 발명하게 되었지요.」

曺여사에 따르면 이 발명은 25년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야 완성되었다. 그동안 비밀펜이 수출까지 활발한 관계로 시간에 쫓겨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발명품이 선보이면 비밀펜 못지않게 인기가 대단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직 출원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험결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으며, 출원 즉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曺여사에 따르면 이 제품은 일반적인 의약품이 아닌 식물의 씨앗을 발효시키나 자연에서 그대로 식물을 특수 표출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피부는 잔주름이

퍼지고, 기미가 없어지며, 모발에 있어서는 모발이 굵어지고, 안빠지며, 노화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한층 더 젊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미와 잔주름이 많은 사람이나, 쉽게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흰머리가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曺여사는 힘주어 강조했다.

발명기업인이 되기전 한때 사업 실패로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던 曺여사는 발명 하나로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 83년 발명의 날 여성발명인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후 '85년국우수 발명품전시회에서는 세계지적 소유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을 받기도 했다.

20년이 넘는 특허를 가진 曺여사는 지금 이 순간도 발명에 몰두하고 있다. (☎)